

“올해 김치산업 성장동력 육성 143억 집중 투자”

도, 생산시설 현대화·원료수급체계 등 6개 사업 온라인 판촉 강화...남도장터 판매 목표액 상향

전남도는 올해를 김치산업 발전 원년으로 삼고 김치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소비 촉진, 수출 증대를 위해 6개 사업에 143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위생관리 강화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 등 ‘김치생산 시설 현대화’에 9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배추, 양파 등 주산지 장점을 활용한 김치 원료의 안정적 공급

을 돕기 위해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에 100억 원을 투입한다. 값싼 수입산 김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배추김치 양념속 넣기 장비 등 ‘김치 생산비 절감장비 구입’에 9억 원, 김치 소비 촉진을 위한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재료 구입비’ 12억 원, 맛을 균일화한 김치 생산을 위해 ‘김치 발효종균 보급사업’ 6,000만 원을 지원한다.

배추 등 원료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선 ‘김치 원부재료 매입 자금’ 12억 원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290억 원 규모 ‘김치 원료공급단지’도 유치해 김치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국산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아 소비촉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5,022개소를 달성한 ‘국산김치 사용표지제’ 인증실적을

연말까지 6,000 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밖에 김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판촉도 강화한다.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 등을 통한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추진, 점입배추 및 김치 판매 목표액을 지난해 90억 원에서 올해 15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김치 생산설

비 자동화와 안정적 원료수급 체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해 내수 소비와 함께 수출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 김치의 본고장인 전남이 앞장서 김치산업을 미래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기준 전남지역 김치 수출 실적은 855만 달러로, 전년(812만 달러)보다 5.3% 증가한 역대 최대실적을 올렸다. /길용현 기자

광주시,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모집

오는 24일부터 신청...350명 선발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친절도, 안전운행 여부, 대중교통 시설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350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광주지역 시내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4일 게시되는 시 홈페이지

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민모니터단에 선정되면 시내버스와 택시를 상시 이용하면서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안전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버스·택시정류소 등 교통관련 시설물을 파악해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동 실적에 따라 소정의 실비를 지급하고 우

수 모니터를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다. 황인재 시대중교통과장은 “시민모니터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의 눈높이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활동이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대중교통을 위해 공모에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민모니터단이 실시한 운수종사자 친절도 평가결과를 서비스평가에 반영해 운송업체에 지급하는 보조사업비 등을 차등(차량 안전점검, 운전자 관리 등)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2건, 연 9,456건의 제안사항을 교통행정

설 연휴 영락공원 실내 추모관 폐쇄

광주시는 설 연휴인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영락공원의 실내 봉안시설인 제1 추모관과 제2추모관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한 결정이다. 다만,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이라도 망월묘지와 영락공원 실외 묘지는 정상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광주시는 영락공원의 실내 추모관을 찾지 못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온라인 성묘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온라인 성묘는 시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e하늘 장사정보’로 접속하면 전화, 글 작성, 지방 쓰기 등을 할 수 있다. 전은옥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이번 설은 온라인 추모를 적극 활용하고, 실내 추모관은 설 연휴를 제외하고 분산 방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이동진 진도군수는 19일 오후 진도군 군내면 진도타워에서 (주)에드가진도, 도휘(주)와 진도 녹진관광단지 호텔&리조트 건립을 위한 2,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올 첫 투자협약...2천억 관광사업

녹진관광지 단지에 호텔·리조트 건립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진도타워에서 도휘(주)의 자회사인 (주)에드가진도와 2,000억 원 규모 관광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새해 첫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주)에드가진도는 오는 2024년까지 진도 녹진관광지에 대규모 호텔 388실과 고급 리조트 풀빌라 40실 등을 건립한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 내 3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전망된다. 모기업인 도휘(주)는 무안 남악 에드가 오피스텔을 9차까지 준공하고 충남 내포, 서

울 역사관에 청년주택 건설 등 사업 영역을 전국으로 확대 중인 지역 토종기업이다. 이번 협약은 전남도가 체류형 관광거점 도약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는 “2022~2023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시작하면서 맺은 첫 관광사업 투자협약이다. 지난해 진도 명랑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한껏 고무된 지역 관광업계는 이번 투자가 인근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연계해 전남 서남권의 ‘머무는 관광’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명준 에드가진도 대표는 “녹진관광지는 이순신 장군의 얼이 서려 있는 곳”이라며 “건축물에 역사성과 스토리를 스며들게 해 시설물 자체만으로도 관광상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신안의 작은 섬 반월·박지도 ‘퍼플섬’이 지난해 제1회 유엔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며 “이곳 울돌목을 포함해 도내 바다와 섬, 갯벌 등 비교우위 자원 곳곳에 상상력을 입혀 세계인이 물리는 관광 중심 전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길용현 기자

시, 여성장애인 산전·산후관리·육아 지원한다

서구장애인복지관 선정...‘홈헬퍼’ 파견

광주시는 산전·산후관리, 육아와 가사 활동의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의 일상 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홈헬퍼) 파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 등록된 저소득 가정 여성장애인 중 출산 예정 및 출산 여성장애인, 영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유아자녀 및 2인 이상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 여성장

인 등이다. 출산 예정 및 출산 여성장애인은 임신관리 및 산후조리, 신생아 관리 가사도움 등 서비스를 지원받고, 48개월 이하 또는 2인 이상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은 자녀양육, 놀이, 학습지원에 관련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증 독거 여성장애인은 청소와 가사 등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홈헬퍼) 서비스는 올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광주

시 서구장애인복지관에 전화상담(062-710-3020), 팩스(062-710-3024),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서구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37가정에 1,451건 홈헬퍼를 파견했으며, 상담 82건, 사례관리 및 지원 6건 등의 사업을 수행했다. 송숙란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여성장애인 가사·양육 부담 해소를 통해 사회 참여를 늘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다문화가정에 ‘산모돌봄서비스’ 제공

시, 하루 5시간 총 70시간 지원

광주시는 출산 다문화가정에 친정국 출신의 산모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산모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결혼이주여성이나 고려인 여성이다. 서비스는 가정 당 일일 5시간 이내, 총 7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신청과 서비스 이용은 연중 가능하다. 산모돌봄비는 산모의 친정국 출신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식사 등 영양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목욕 및 돌보기 등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등 육아에 필요한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올해 산모돌봄비로 활동할 결혼이주여성 또는 고려인동포 여성 30명을 모집한다. 한국 거주 3년 이상 및 자녀 출산 후 1년 이상 된 여성으로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과 같은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이며, 2월

7일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산모돌봄비로 선정되면 35시간의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돌봄비로 활동하게 된다. 산모돌봄비에게는 시간당 1만 1,000원의 활동 수당과 교통비가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산모돌봄비 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북구 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2-363-2963)로 문의하면 된다. 최선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친정엄마가 가장 그리운 출산 시기에 언어와 문화적 이질감으로 힘든 이주여성에게 산모돌봄이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보살핌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산모와 가족이 편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중흥S-클래스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 중흥이 짓습니다

주거명품 중흥S-클래스를 통해 대한민국 주거문화를 선도해온 중흥그룹!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큰 목표는 바로 고객의 행복을 짓는 것입니다

• 2020 건설업력증진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상 • 2019 헬월드경제 '살고싶은집' 수상복합부도 대상 • 2018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 전국 주요 사업실적

안산 선부동 중흥S-클래스

울산 신동 중흥S-클래스

서울 현동 중흥S-클래스

세종시 H9 중흥S-클래스

광교신도시 중흥S-클래스